

2022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토론회 속기록

일 시 : 2022. 12. 6.(화) 19:00 ~ 21:00

장 소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서대문구
(민관협치과)

2022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토론회 속기록 (2022. 12. 6.)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주제별 토론인데요 주제별 토론은 우리 분과장님들과 준비됐던 위원님들이 다함께 자리하셔서 하실 것이니까요, 자, 다들 오시죠.

토론 주제는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동·구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참여 활성화 방안”이 있고요. 네 번째 “예·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온예산제에 대한 운영” 관련입니다.

각 주제별로 진행은 ○○○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자 동·구협의회 회장이신 ○○○ 위원님, 복지문화·보건분과 ○○○ 분과장님, 일자리·재정분과 ○○○ 분과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주제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관련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그럼 ○○○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첫 번째 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안녕하세요. 첫 번째 토론 주제를 맡은 ○○○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관련”인데요, 모집인원 100명 초과 시 우선선발과 추첨제외 기준과 또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모집방법 등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였고.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수렴해서 내년 13기 위원회 집행하실 때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렇게 하겠죠, 위원장님?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맞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그럼 자유롭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과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의견을 주실 때는 반드시 위원님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이 올해 2022년 12기 때 저희가 위원님 모집을 할 때 아마 얘기가 좀 있었었죠. 어떻게 선별을 했고, 어떤 인원이 대상이 됐느냐. 그래서 추첨을 하지 않는 연임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됐고, 또 추첨에서 제외됐던 분은 왜 제외가 됐는지를 이번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올 초에 모집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불협화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올해는 이것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준비했던 것이고요. 다양하게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네, 위원님.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다시 마이크가 들어와서요. 기후·환경·도시분과위원회 ○○○이라고 합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 위원님 감사합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저는 올해가 졸업반이라서 저것하고 큰 상관없기는 한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모집인원을 100명으로 했는데 1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 예를 들면 그것을 더 초과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100명으로 했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 ○○○ 주무관 [민관협치과]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을 것 같아서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위원 명수가 40명 이상 100명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인원을 늘리려면 조례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이상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나 또 의견, 새로운 의견 있으시면.
네, 위원님.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면 됩니다. 스피커라고 나와 있는 거기 누르시고요.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 ○○○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예.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은 활동을 하는데 그 결과물을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모니터에 있는,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여기 가운데가 없어서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그래서 모니터에 모집인원 100명 초과 시 우선선발과 추첨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지지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성별, 연령을 고려한 모집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서대문구가 14개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북가좌1동 출신인데 저희 동에서 활동하는 위원님이 안타깝게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모집 위원님이 전체가 100명일 때 동을 14개동으로 나누면 한 7~8명으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동에서 활동이 왕성한 동은 너무 많고 그 동에 관련된 주제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 그냥 생각으로는 동마다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4명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어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먼저 하셔도 돼요.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그러면 조금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던 내용이 고요. 되도록이면 골고루 분산돼서 성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없이, 차별 없이 어떤 한 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에서 나와야지 치중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제안사업도 다양하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3년 동안 비교를 해 본 결과 각 동별에서 잘 모르시고 참여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관심이 조금 많으신 주민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선별할 때 행정에서 어느 동에서 지원하고 어느 동에서 지원한 것을 나누는 것을 그 기준을 다 모든 것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게 분석학적으로 보이고요.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그러면 동에서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을 2명이나 3명 정도로 조금 수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분씩은 최소한 원래 따로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지역에서 골고루 선별을 하기 위해서 동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을 행정에서 추천하거나, 우선은 동에서 3명 정도를 잡아놓으면 나머지 분에서 꼭 7~8명으로 균등하게 자르자는 게 아니라 너무 활동하는 분이 편중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그 부분에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조례상에 동대표를 1명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저희가 두게 되면 우선선발 외에 추천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이어서 이것은 조례에 상반되지 않는가라는 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행정의 의지가 되게 더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어떤 내용이나 하면 홍보를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 동에 보통 자치회 위원님분들이 사실 한 20~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성 사업이 됐든, 내지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광고를 좀 하시면 모집인원이 더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3명은 조례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1명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2명, 3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로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좀 더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참여율이 좀 낮았던 동은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안법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감사합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그러면 아까 뒤에서 위원님께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다른 게 아니고요,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위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금방 각 동에 평균적으로 위원들이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각 동에 위원님들이 신청을 해야 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신청을 안 하면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죄송한데 위원님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시면,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죄송합니다. 기후·환경·도시분과에 ○○○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 위원님. 일단은 더 참여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신청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이 부분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생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주민들이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내가 뭘 차별화해야 되지? 어떤 예산을 내가 봐야 되지? 내가 뭘 제안해야 되지?'라는 막연한 그런 포스트 문구가 저희를 좀 혼란스럽게 하거나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모집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관심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런 일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지, 사실은 여기 오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예산 활동이 아시겠지만 쉬운 것만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2개년 정도, 2년 정도를 하시면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3년차일 때 좀 정확히 알겠다 하면 임기가 끝나죠. 그래서 한 회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참여를 하실 때는 더 명확하거나 정확하게 딱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네, 위원님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 ○○○이고요.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네, ○○○ 위원님.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제가 예전에 통장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서대문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홍보에 관해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네, 위원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해주세요.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주민자치·교육분과 ○○○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지금 우선선발 인원에 대해서 북가좌1동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랬을 적에 각 우리 14개동에서 최소한 전체를 7명씩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동에서 나온 위원회에 지원한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동에서 나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4명 정도 해주고, 그 4명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선 각 저거로 4명~5명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를 갖고서 추첨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여기 통장님도 저거하는데, 우리 북가좌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뽑을 적에 통장님들이 다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민자치위원에 뽑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서 많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가좌1동에서 많은 사람이 되면 그만큼 다른 데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각 동에는 몇 명씩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지원이 안 되면 4명 했으면 4명 해 주고, 5명 했으면 거기서 한 사람은 추첨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 제외에서 60% 미만이나 주민의견서를 한 번 제출하자라는 그런 데에도 저도 동감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전기 위원 중에서 사퇴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또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할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한 기 더 쉬게 하고 추가로 들어갔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견 저희가 합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동별로 4명씩이나 5명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견 저희가 행정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우리 운영진들이, 지금 앞에 계신 운영

진 분들이 운영회의 때 합의해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정말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참고로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지금 시간이 거진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 위원님.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동별로 인원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민자치입니다. 얼마나 자율적으로 잘 참석하느냐의 문제지 동별로 균등하게 그런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들을 잘 뽑아서 잘 활성화시키는 게 제 생각에는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별 배정들은 최소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고맙습니다. 우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다렸던 듯이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그 역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운영진 회의 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토론 주제 2. 동·구협의회 관련 사항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두 번째 토론하시죠.

○ ○○○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로 동·구협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 ○○○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자치·교육분과 ○○○입니다.

동·구협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받았는데요. 좀 전에 저희 참여예산위원 모집부분에 우선선발 대상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1인의 위원에 해당하는 분들, 그래서 14개동에 14분의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협의회가 동·구협의회이고요. 저희는 2021년 4월에 첫 모임을 갖고 지금 2년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동대표분들이 바뀌시기도 하고요, 일반 위원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특히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간담회, 아니면 친목, 그다음에 동 간의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모임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저희가 환경이 좀 바뀌면서 동 주민자치회하고 참여예산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통 역할이나 가교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해주는 담당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동·구협의회에 계신 14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의거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기회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현재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활동은 각 동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현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참여예산에 제안서를 내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여예산으로 곧바로 전달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내주시고 있고.

반대로 참여예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일정이

나 그런 것들을 동 주민자치에 공유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같이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분께 들은 의견인데요,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하니 너무 자기 동, 아까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기 동에 관련된 의제만 낸다. 그런 데 편향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실제 활동을 하신 분들의 소감을 정리해 보면 그전에는 우리 동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활동을 했다면 참여예산과 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동에서 타 동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타 동에서 우리 전체 서대문구에 대한 관심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본인의 역량도 향상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동·구협의회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 이전에는 주민자치 시범동 5개동이 있었을 때 확대했을 때 동별로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이 한 분 계셨고, 주민자치회는 5개동 시범동을 하면서 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이렇게 세네 개의 단체가 하나로 자치회로 결성이 되면서 대표성을 갖고 한 분씩 다 들어와서 그때 회의를 했었죠. 그때 저도 남가좌1동에 1기 때 자치회장을 해서 이 협의체를 알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저희가 1명씩 둘 수 있다가 바로 이 내용인데 둘 수 있다라만 되지 협의체나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구성할 수 있다라고 특별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협의회가 전 기수에 지금 현재 구의원인 ○○○ 위원께서 ‘준비를 한번 해보자. 더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준비를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든 많은 우여곡절 속에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협의체를 잘 운영을 한다면 아마 참여예산도 그렇고 동별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직 여기 회의수당도 없고

어떠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모임의 형식, 간담회 형식의 그런 회의체가 되다 보니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에서든 구에서든 어디서든 많이 도와주셔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질문드려도 될까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네, ○○○ 위원님.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저는 일자리·재정분과 ○○○입니다.

지금 동·구협의회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구협의회가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각 동에서 추천해서 한 분씩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거 그것 하나 이해했구요. 그러면 동·구협의회가 협의체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활동에는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그 활동,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회의나 하는 워킹그룹에는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구협의회 의견이나 또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들은 동·구협의회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추가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리면 원래 원칙은 회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회장님들은 다른 협의체나 다른 모임, 회의가 많아서 저희가 배제를 하고 대표성을 운영진 임원회의에서 한 분을 추천을 해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동의 대표성을 갖고 저희 동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참여

예산위원회의 전체 돌아가는 흐름이라는 것을 동에서 자치회 정기회의 때 설명을 해드리거나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는 부분, 또 동별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참여예산위원회에 와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주시면 공유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협의체거든요. 혹시 설명이 됐을까요?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네, 어떻게 연관이 돼서 활동하시는지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추가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저 복지문화·보건분과 ○○○입니다.

저희 동이 홍은1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은1동 참여예산위원 그분은 제가 주민자치회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를 거의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안에서도 약간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동대표로 나오셨는데 만약에 동 주민자치회 임원직을 맡고 계시면, 겸임을 하고 계시면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위원님들이 동대표로 오시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진에서는 또 '네가 뭐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 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정기회의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출을 하자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지금 계속 조금 더 자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뀌어 나가는 중이고.

실제 저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규칙은 동 주민자치회 운영진 회의에는 동대표님이 참가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의견 교환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가 뭔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회장님이 참석을 원래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회장님들은 회의에 너무 과중이 돼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할 것 같아서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 위원님은 동에 가시면 이제 자치회가 구성이 되시면 동대표가 추천이 되시면 감시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가셔야 될 하는지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년 동안 동·구협의회 활동을 해 보니까 동대표를 참여예산을 1년 정도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맡아주시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여예산도 처음이시고 동대표도 처음이시면 너무 우왕좌왕 정신이 없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여예산을 한 1년 정도 위원회 경력을 가지신 분이 동대표로 딱 선임이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지원해 주세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네, ○○○ 위원님.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또 하나 질문. ○○○입니다.

지금 그러지는 않겠지만 동·구협의회 홍보를 하셨는데, 저희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임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을 주민참여에 가서 더 열심히 동·구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하고 싶다’ 이랬을 적에 그분은 여기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우선 편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네, 못 들어오시죠.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알겠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기본적인 자격 자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네, ○○○ 위원님.

○ ○○○ 위원

- 민관협력회의 리더 ○○○입니다.

그 부분이 민관협력회의에서도 의논하면서 원래 행정으로도 동으로 공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의 참여예산 동대표를 선출해 주실 때, 정기회의에서 대표로 선임해 주실 때 3년 동안 참여예산위원을 하신 분은 가능하면 제외를 하시고 다른 분 중에서 참여예산 경험이 있고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분과 안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선출을 해 주십사 하고 아마 행정에서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고맙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3. 위원회 참여 활성화 방안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세 번째 토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안녕하세요. 오늘 평가토론회 “위원회 참여 활성화 방안” 진행을 맡게 된 복지문화보건분과 ○○○입니다.

피곤하시죠? 다들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축구 보고 아직도 어른어른거리는데 축구는 한 90분만 뛰면 되잖아요. 우리는 90년 일할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바짝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결산의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평가토론회를 갖게 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민관협치과 참여예산팀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시간의 의미를 좀 이렇게 새겨보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공유하고 느꼈던 점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서로 가 급적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참여위원회가 내년에는 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산팀에서 슬라이드에서 준비해 주신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오늘 여기 “참여예산 참여 활성화 방안”에서는 보통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내용들, 위촉 위원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줌이라든가 대면회의에서 얼마나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또 분과로 돌아가서는 원활한 분과회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참여예산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4가지, 상반기 결산(안) 주민의견서 작성, 상반기 모니터링, 하반기에 있는 예산(안) 주민의견서 작성, 하반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과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출석을 좀 이렇게 통계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들 그러시겠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서 참여율이 저조했고, 또 온라인 회의보다는 대면회의에서 참여율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사실 저렇게 많이 모이는 회의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인 회의인 만큼 저는 상반기에는 참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서 만족스러웠고, 하반기는 보통 다른 모임 정도의 참여율을 보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단 만족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참여예산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저 참여율을 좀 더 높여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출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출석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이면서 가장 작은 일부분이기는 하죠. 회의에 참여를 얼

마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또 어떻게 의견을 공유하느냐, 우리가 교육 및 워크숍은 어떻게 실시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30분 동안 토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진행자로서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한 번 나누어서 각각 한 10분씩, 아니면 좀 더 짧게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3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온라인과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전체회의. 이 전체회의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는 분과회의와 현장 모니터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대한 한번 의견을 모아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각각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는 물론 분과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서로 공유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 엄지 척 보이시죠? 좋았던 점 말씀해 주시고. 또는 아쉬웠던 점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분이 좋았던 점이라든가 아쉬웠던 점 얘기 듣고 본인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앞선 발표자가 발표했던 것에 좋았던 점 중에서는 좋은 것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는지, 아쉬운 점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또는 새롭게 이런 것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틀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의견을 자유롭게 지금부터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먼저 전체회의. 온라인과 대면에 대해서 우리가 좋았던 점이라든가 아쉬운 점, 또는 강화시켰으면 좋겠거나 개선했으면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기탄 없이 얘기 부탁드립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의견이 있습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우리 ○○○ 위원님.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예산위원회를 구청 인터넷에서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참여위원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가 아닌 공익의 개념이고 구청 발전의 개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회의 날짜가 공지되거나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들이 급박하게 지정되지 않고 2, 3주 전에, 한 달 전에 공지되기 때문에 스케줄들을 자기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가능하면 맞춰서 참석해서 정말 자치,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발표하거나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들도 사전에 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지해주고 하니까 저도 좀 부족하지만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사실 읽은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자료를 전에 잠깐만 보고 오면 정말 보이는 분야가 많이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사실 많이 게을렀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우리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회의에 대해서 좋았던 점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시간을 안배를 잘해가지고 제시간에 끝내주려고 했던 우리 위원장님 이하 진행자분들의 노력이 참 좋았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주민자치·교육분과 ○○○이라고 합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위원님.

○ ○○○ 위원 [주민자치·교육분과]

- 전체회의가 사실 온라인이 우리 생활에 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회의가 정말 여러 사람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와서 어떤 내용이 되는지 듣고,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달력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 활동집 같은 것을 먼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참여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준비해서서 집 근처까지 가져다 주시든가, 아니면 구청 근처에 오면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해 주시나? 되게 열정적이지 않다’. 저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도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열정적이시지만 행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예산회의 자체가 너무 열정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회의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사실 참여도가 되게 높고, 대면으로는 사실은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것을 100명이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회의는 온라인 회의 좋았고요. 또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회의들은 어떤 자신들의 제안서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에서 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직접 자료집을 전달해 주신 것은 우리 민관협치과 참여예산팀 담당자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그 뒤에는 우리 ○○○ 분과장님과 ○○○ 분과장님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분과장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 드리지 못했던 저희 복지문화·보건분과원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저도 의견을 좀 드리자면, 참여예산위원장 ○○○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저는 10기 때 처음 시작을 해서 대면회의 때 전체회의를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면회의 나름의 또 보람도 있고, 또 참여율도 있고, 현장감이 되게 있더라고요. 좁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잠깐 화면을 끄고 딴 짓을 할 수도 있고, 또 잠깐 일을 볼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면 대면은 그럴 수는 없고.

사실 제가 세 번째가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잠깐 내려올 수 있다면, 저희가 첫 모니터링이나 첫 회의 전에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느꼈고 그 당시에 느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만 한번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나면 오히려 줌보다는 대면이 더 좋더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앞으로 온라인이 지금 우리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을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참여를 높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늘 아시겠지만 ‘자, 지금 3분 후에 사진 찍습니다.’ 이런 것보다 수시로 계속 10컷이면 10컷 이상 찍어야 수당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옵션이 있어야 나갔다 들어와도 잠깐 사진도 켜고. 왜냐하면 주민자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에만 사진을 참석을 하고 찍으면 회의 인정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행정이나 이쪽에서 실시간, 죄송합니다.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활성화니까. 10분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 마무리 때까지 한 5번 이상 찍으면 계속 얼굴을 어쩔 수 없이 비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 위원 ○○○입니다.
저는 2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2번이요? 2번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1번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니까요.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아까 위원장님은 3번을 하셨는데 왜,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3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번도 얘기도 좀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1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라인이 주가 된다면 우리 분과장님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한두 명 정도 분과위원님들이 또 소감 발표하잖아요. 분과 위원님들이 더 소감 발표하는 횟수를, 인원을 더 늘려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과장님이 한 10분 하면 1분 정도 한두 분 하고 마는데 분과장님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세네 분 정도 더 이렇게 늘려보는 게 어떤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 의견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대면회의와 관련해서 약간 속물적인 내용이라는 하지만 식사라든가 간식, 교통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은 없으신지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그런가요?
네, ○○○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저는 복지문화·보건분과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면회의 할 때도 온라인으로도 같이 동시에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요즘에 대면이랑 온라인을 같이 하는 회의가 많기는 한데 정말 이도저도

안 되고, 참석도 저조하고 집중도 안 되는 그런 폐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게 대면인데, 안 되면 섞어서 하면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우리 임원진에서 상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났어도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해서도 되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얘기하는 분과회의와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들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 ○○○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 위원님.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분과회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반기 때는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도 잘 못했고.

그리고 원활한 분과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쪼개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이게 제안자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안자는 저쪽에 가 있습니다. 공사할 때도 엉뚱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공사할 때 중간에도 가서 제안을 하면,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금액을 따와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안자가 공사현장을 가서 불편하니까 제안을 한 건데 현장에는 안 데려가고 엉뚱한 사람 데리고 가서 하고.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분과보다 더 단위가 적은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분과 내에서 소그룹으로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현장 모니터링 때 제안자 대동 여부 적절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안자에 대해서는 참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 모니터링 제안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 분과장님.

○ ○○○ 분과장 [기후·환경·도시분과]

- 안녕하세요.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저는 이걸 행정에 약간 부탁드립니다 싶은 건데, 이 현장 모니터링은 사실 위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이 평일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쉬워해요. 그래서 저희 분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오전에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오후에 진행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주말에 2주 정도에 걸쳐서 다니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장 모니터링을 한 분과별로 나누어서 다니는데 사실 상반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설명만 듣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 모니터링보다 가기 전에 그냥 차라리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진행될 때 2개 분과가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야지 한 분과만 가니까 너무 의견이 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만나면서 큰 차를 타고서 주말에 위원님들과 같이 오손도손하게 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감사합니다. ○○○ 분과장님 말씀은 현장 모니터링 횟수도 좀 늘려봤으면 좋겠고, 시간 배정도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시간 배정도 좀 더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또 2개 정도 분과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것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거나 경험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기 때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일례로 주말에 토요일 날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는 분과위원님들도 같이 다 가게 됐죠. 한 버스로 가니까. 그래서 약 한 40~50명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버스 2대인가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 분과의 사업을 같이 돌아서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마 일장일단이 있겠죠.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과의 사업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의견서 다 제출했으니까. 또 어떤 것은 시간을 너무 할애를 해서 내가 안 봐도 되는 내가 소관하지 않는 분과까지 참여를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 ○○○ 분과장님 말씀은 그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도 그때 찬반이 좀 갈렸었던 거예요. 내가 관련도 안 하는 부서에 가서 같이 버스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같이 가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은 이미 저희가 너무 익숙해 있죠. 11기, 12기 때는 저희가 분과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많게는 10명 이상 15명, 16명, 적게는 6~7명도 저희가 이동을 하니까 단시간에 모니터링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말에 만약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가다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거나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 분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 분과장 [기후·환경·도시분과]

- 위원장님 의견에 약간 반박해서 말씀드리면, 10기 때 그렇게 전체 위원이 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니터링은 자기 분과와 상관 없이 모니터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인 해당 분과에 관련 없는 사업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1개의 분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2개씩 분과를 묶어서 나가자는 말씀이고.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면 가서 그냥 뒤에서 노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분과가 가면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이게 단점이 분과끼리 내에서 의견을 너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과 내에서

몰아간 의견이 그 다음 분과회의에 가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2개의 분과가 있으면 이게 분과회의에서 조금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더 숙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2개의 분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그럼 속의 토론을 나중에 현장 모니터링 이후에 2개 분과가 모여서 하시자?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까 시간 외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관협치과에서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복지문화·보건분과 ○○○ 위원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 위원님.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저는 분과회의 및 현장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초기하고 말기만 가서 두 번의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가는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을 다 지났는데 거진 끝에 가서 말기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현장 모니터링을 갈 때는 초기, 중기, 말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초기하고 말기만 가니까 초기에 조금 하는 척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거진 마지막 날 2, 3일 남겨놓고 사업이 진행이 끝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 자체가

순탄하게 천천히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게 잘못하다 보면 빨리 짧은 기간에 단기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저의 생각은 최소한 현장 모니터링은 세 번을 가서 저희가 사업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참여예산의 빠빠한 일정 가운데서도 모니터링을 세 번 정도 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중간 모니터링 정도는 다 나가지 말고 일부 분과에서 관심이 있거나 그런 위주로 3~4명 정도만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같이 다녀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타 분과들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모니터링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의견서를 반영해서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공 전에 최종 시방서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1차 서류 모니터링을 제안자랑 같이 하고, 중간점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약에 관련된 프로세스 때문에 설계 변경이나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 요구사항과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규격발주서를 가지고 1차 하고 이것이 잘 발주서대로 완공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형태로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소주제 2번 “분과회의 및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분과회의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대부분 관심이 많으셨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횟수라든가, 또 시간 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나오시는 제안자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세 번째 “위원 교육 및 워크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의견 같은 것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저는 복지문화·보건분과 ○○○인데요.

아까 현장 모니터링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제가 저희 동네에 공사를 하는데 주민감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자가 주민감독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저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주민감독제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 위원님과 상의해보고, 또 나중에 임원회의 할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교육과 워크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워크숍이라든가 위원 교육은 당장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금은 전반기에 너무 어리바리한 상태에서 위원 워크숍을 하고 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후반기 워크숍은 좀 재미있기는 한데 남는 게 없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전반기에도 무슨 진목 강화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녹지분과장 ○○○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 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 분과장 [안전·교통·녹지분과]

- 그러니까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

로 얼굴을 익히고, 또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교육과 워크숍은 연초에 실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 위원님.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일자리·재정분과 ○○○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것 의견드리고 싶은데, 교육을 온라인이나 아니면 대면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적에 그 다음에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 개인 카톡으로 드릴 수도 없고, 어디에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쭙보면 또 해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육 후에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교육시간 내에는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봤을 때 시간을 너무 강사님을 독점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사항을 교육 후에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피드백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그리고 그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적인 면에서는 혹시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 ○○○ 위원님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 온예산이나 참여결산 이런 관련 교육들은 1차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교육 영상들을 올려주시고 그것을 일정 기간 개인학습을 한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교육을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

을까.

그래야지 지금은 현장에 와가지고 바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용 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공유를 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궁금증이나 의문사항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제가 기억이 정확치가 않은데, 참여예산팀에서 먼저 자료를 올려주지 않으셨던가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주민자치회랑 좀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영상들을 미리 올려준 적이 많아가지고.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분과장님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셔서 한 30초 내로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워크숍은 하여간 우리가 전반적인 의견이 전반기에도 좀 더 친목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오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과 워크숍 같은 것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분과원들끼리 초반에 빨리 친목의 장을 만들 수 있고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우리 전임자, 재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팀장님 잠깐 손 드신 것 같은데.

○ ○○○ 참여예산팀장 [민관협치과]

- 아까 학습영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별도

로 있는 것 아시지요?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올해 학습영상 5강 10분씩 해서 참여예산의 제도부터 다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그것을 보시고 내년에 활동하실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팀장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아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다른 위치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임원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또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 중간에 한번 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또 감독제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4. 온예산제 운영 : 예·결산(안) 주민의견서 작성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다음은 오래 기다리신 ○○○ 분과장님.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 소개는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고요.
토론 주제는 “온예산제 운영 : 예·결산(안) 주민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온예산 주민의견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연간 7,500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작성한 온예산 주민의견서를 구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가지고 잘 집행되고 있는지 구청에 묻기도 하고 아마 따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서 내용이 부실하면 구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들의 노력이 아마 아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헛수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해가지 작성해야만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온예산 주민의견서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는 전문가인데 온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잘 모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우리 의견서를 거의 아마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참 중요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온예산 토론 한 35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주제는 3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주민의견서 작성 범위하고, 두 번째는 온예산 주민의견서 참여 헛수고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방식입니다. 이 3가지를 토론하겠고요.

오늘 토론은 찬반토론이 아니고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코멘트를 달 사항이 아니고 맞는 의견도 좋은 것이고 맞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이 모든 의견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면 여기 구청에서 아마 선별해가지고 내년에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 주민의견서 작성 범위에 대한 토론회인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를 범위를 한번 정해줘 볼게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와 같이 우리가 개별사업 전체 예산서를 놓고 거기서 선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을 예로 든다면 분과별로 자기가 맡은 분과 전체 부서 예산사업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신규사업, 처음 들어가는 사업, 이런 사업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돼야만 선정해서 하자라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겠지만 온예산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4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린 그런 방향으로 '나는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선정했으면 좋겠다'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일단 우리 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첨언하자면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에요. 우리가 과목이라고 따지면 온예산제가 제일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구의회에 온예산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때 제가 운영진, 부위원장님, 간사님, 행정하고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어필을 하고 왔어요. 이 의견서 책자는 단순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땀과 노력이 녹아져 있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나왔던, 많은 숙의토론과 많은 심사숙고 끝에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실지 안 보실지, 지금 분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안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라. 저희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주제를 딱 정해지고 사업범위에 대해서만 우선 의견을 좀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좋은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온예산을 우리가 지금처럼 한다면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용도 잘 모르는데 한 두 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사가 수정 보완해 주는 것으로 할 바에 예산을 구청에서 낭비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아마 이런 회의감도 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두 개 사업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장 ○○○입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

○ ○○○ 분과장 [복지문화·보건분과]

- 저는 올해 초임이라가지고 사실 온예산이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신규사업처럼 새로 시작되는 것들은 좀 더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한 것들은 분과별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고, 물론 본인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과 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 ○○○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보니까 저희가 많이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때 우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께서 구예산 위주로 범위를 정해서 하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온예산제를 했고 주민의견서를 내봤는데요 선배분들이 늘하시는 말씀이 '의견 내봐야 뭐 하나. 반영이 안 되는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법으로 강제가 아닌 참조자료 형태로 쓰이지만 그래도 구민 스스로가 예산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반영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낸 의견들이 어떠한 절차든 검토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회신들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제는 사업범위에 한정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온예산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재정법에 꼭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하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데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저도 신규사업에 동의합니다.
우리 ○○○ 위원님.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신규사업, 그다음에 구청 자체 예산사업, 그 범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1년차, 2년차, 3년차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서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했던 의견서도 한번 1년, 2년, 3년차를 한번 리뷰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의견들을 냈는데 안 반영되는가. 그냥 관심 없이 봐서 그런가. 아니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어떨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의견 드려봅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반영 여부, 이 사항은 아마 범위하고는 지금 토론하는 범위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다음 우리 참여예산 회의 때 공개를 해달라든가 이런 제안을 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사업범위에 대해서만. 아까 조금 전에 신규사업 위주로 하자, 구 예산사업 위주로 하자, 이 두 가지 나오셨는데 기타 추가 없으신가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없는 것 같습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없으면, 그러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예산 주민의견서 작성 횟수에 대한 토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예산 예산(안)하고 결산(안), 2회를 작성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은 조례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작성을 해가지고 매년 한 11월이나 아마 서대문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 부속서류를 아마 제출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안)은 이게 규정은 없어요. 강제는 아니고 서대문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 건데 서대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안)은 그나마 우리가 쓰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감시도 하고, 또 구의원님들한테 주민의견서를 내가지고 사업을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데 결산(안)은 이미 써버렸어요. 이미 쓴 것이거든요. 이미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주민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느냐는 이런 아마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좋겠다, 하나만 하면 좋겠다, 이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현재처럼 두 가지를 예산(안)하고 결산(안)을 두 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성하기도 힘들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자’. 의견 있으신 위원님.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분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그냥 주시면.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산(안)은 제가 꺾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주민의견서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됐나 안 됐나 이게 아니고 이미 돈이 다 집행돼 버린 거거든요. 다 썼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그 집행한 공무원을 징계해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안)이 꼭 필요한지.

저 분과장 개인 의견은 그나마 작성도 어려웠는데 한 번만 했으면 좋겠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 ○○○ 분과장 [주민자치·교육분과]

- 주민자치·교육분과 ○○○입니다.

저는 현재대로 두 가지를 다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분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결산(안)은 완료된 이미 끝난 일인데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1년 예산을 진행을 하고 그 진행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면 저는 그 다음 해 공무원들의 진행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우리의 의견을 참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반드시 지금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께서서 결산(안)도 의견서를 작성해야 공무원이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 ○○○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찬성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신임이어가지고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솔직히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 전화도 해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도 전화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요. 또 혼자 나가서 실사도 한 번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한 번만 하게 된다면 어차피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하는데,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주민참여위원으로서 책임감이라는 게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으로는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한 명이라도 더 제안서를 내서 우리구를 더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니까 예산을 알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산이 잘 썼나 잘못 썼나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복지문화·보건분과 ○○○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가 4회째 하는데요 그전에는 제안서를 내면 담당 공무원 분하고 공무원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게 없어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거 그전에 하실 때 담당 공무원하고 면담 안 하셨나요?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저희 부서별 설명할 때도 면담했었죠.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했죠, 전체적으로?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그때도 전체적으로 아니고 분과별로 했었죠.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위원님, 그 안건은 다음 주제 있으니까 그 안건에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이상 없으면,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전반적인 운영 방식인데 조금 전에 ○○○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금 올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서 설명회나 이럴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정확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듯이 내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서를 쓸 예정이라고 그러면 주민의견서를 쓸 내용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다면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안), 결산(안)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봤는데 이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혹시 의견 있으면 위원님 성함 말씀하시면서,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아까 분과별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다 모여서 했습니다. 딱 복지문화·보건분과만 모여서 공무원들이 설명한 게 아니고 전체 분과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다 설명을 하시고, 또 구의회에 가서 경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최성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기는 찬반토론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 ○○○ 위원 [복지문화·보건분과]

- 그게 아니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담당 공무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녹음돼가지고 구청 담당자가 그 내용을 풀어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다 반영될 겁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말씀 잠깐 드리면 그 말씀이 맞아요. 구의회에 가서 모니터링도 저희가 의회 질의하는 것도 다 현장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지자는 것이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을 안 했던 이유는 어차피 저희 의견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피로도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장시간 오래 청취를 하고, 또 현장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만 보니까 의회의 그것들이 녹화방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녹화방송으로 같음을 하자라고 의견이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녹화방송으로 저희가 보기로 했던 건데, 저희가 또 그런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주무관 [민관협치과]

-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살짝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안사업 심사가 아니라 온예산 부서 설명회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분과별로 줌으로 다 참석을 하셔서 담당자분이랑 질의·응답을 올해에도 예년과 똑같이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다는 것은 조금 약간 오해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신 것이라는 것을 정정해드립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토론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업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온예산 주민의견서니까 거기에 한정해가지고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지. 온예산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저는 3년차 하고 금년이면 마지막인데 온예산제도하고 아까 우리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구의원들한테 제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냈을 텐데 우리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낸 제안서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구의원들이 뭐를 질문했는지. 이런 내용은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같음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된 지를 우리한테 다시 이런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냈던 게 몇 건 몇 건 이렇게 각 분과별로 해서 몇 건을 내서 구의회에다 제출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시원하겠더라고요.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으니까 이 사항은 아마 우리 구청 부서에서, 안 되면 구의회 녹취록을 좀 풀어서 보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이런 의견을 질문한 구의원이 있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후분과에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기후분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갖다 작성을 하고 부서 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희 분과 회의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전에 다 조율이 돼가지고 공무원들도 나오게 돼 있고 다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분과만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그냥 서면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공무원들 행정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무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납득할 만한 답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지난 일이지는 하지만 구청 쪽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분과회의를 서면회의는 좀 자제하고 대면회의나 충분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뭐 또 추가질문 없으시면 이제 저희가,

○ ○○○ 분과장 [주민자치·교육분과]

- 잠깐만 하나. 주민자치·교육분과 ○○○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됐고 반영이 됐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과정 중에 보면 모니터링을 하든, 그다음에 주민의견서를 제출을 하든 그러면 그 과정을 항상 뒤에 결과에 저희 담당 주무관님들이 ‘이것은 언제까지 구청에서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뭐 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작할 때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일상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도 운영진이었지만 저도 지금 약간 반성하는데 내년에 뽑히는 운영진, 그리고 행정은 모든 과정들의 결과물을 운영진도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리고 전체 방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이거 당신이 한 결과예요.”라고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공유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모두 열심히 1년을 일했지만 구청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일한 게 헛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이 사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니 내년 운영진은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께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셨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의견서나 이런 중요사항이 있으면 결과나 이런 것을 수합해서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때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 ○○○ 위원 [일자리·재정분과]

- 그리고 그 내용을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면 저희 임기가 끝난 사람들도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구청에서 검토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분과장 [주민자치·교육분과]

- 죄송한데 저 마지막 짧게. 저희가 온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안), 결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쓰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공무원처럼 월급 받고 맨날 예산(안)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의 선에서 최대한의 예산(안)을 쓰면 그것으로 오케이예요.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마음에 가책 같은 것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다해서 참여했고 열심히 썼다. 이것으로 만족하셔도 저는 박수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 위원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 ○○○ 위원 [기후·환경·도시분과]

-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기후·환경·도시분과 ○○○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전문가가 아니라는데 실제로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보다 더 전문가가 많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충분한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일동 박수!)

○ ○○○ 분과장 [일자리·재정분과]

-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온예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딱 정확하게 9시 약속했던 시간과 한 5분 늦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들려드리고 싶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주제별 토론을 하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못했던 것도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이 내용들을 회의록에 잘 담아서 다음 13기 운영진이 구성이 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잘 해서 13기에는 12기의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해 주신 ○○○ 부위원장님, ○○○ 위원님, ○○○ ○○○ 분과장님, ○○○ 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일동 박수!)

○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일동 박수!)